

# 양태 후치의 한국어 특성 연구

韓語的情態後置特性研究

楊人從

중국문화대학

## 요약

한국어는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등 언어와 같이 양태를 문장의 뒤어 오도록 하는 구조를 지닌 언어다.

양태란 문장에 대한 화자의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조사, 부사, 동사, 형용사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화자의 주요 의도,감정은 대개 문장의 맨 뒤에 온다.

문장의 끝에 덧붙여진 화계(speech level, 대우법,경어법,공대법),서법(mood 진술,의문,명령,권유,감탄) ,시제(시간에 대한 인지) 등은 일반 문법 체계에 언급되어 온 문법범주들이다. 이에 대해 본문은 이것들과 아울러 의존명사,보조용언 형태로 문장의 끝에 오는 구조를 [명제]+[양태]의 구조로 보고 싶고 보아왔다. 통어적 구조 또는 연어(collocation)로 여겨진 의존명사 또는 보조용언도 화자의 명제에 대한 추측,추론,확신,의도,의지,겸양,희망,필연,개연,완곡 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국어 문장의 어순을 분석하면 으레 [주어+술어],[주어+목적어+술어],[주어+목적어+부사어+술어],[주어+보어+술어] 등으로 나뉘어진 것이 통례인데 통틀어 하나의 [명제proposition ] 또는 [내용 content ]이다. 그러나 이들 명제에다 분명 무엇이 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화자가 명제에 대한 태도들이다. 이로 보아 한국어는 화자 양태 후치의 언어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학시 [명제]+[양태]란 문장 구조를 명시해 주면 학습자가 훨씬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키워드:명제,양태,문장구조,의존명사,보조용언,통사론,화용론

## 摘要

審視韓語的詞順(word order)構成句子的要素時，發覺在SOV[主賓述]基本架構的命題內容之外，還普遍的添加談話人的心理態度，此心理態度即話階、敘法、時制及其他內心世界的感情、感受、觀感等態度。

韓語基本句模型後附加談話人心理態度的方式，有終結語尾、連結語尾、依存名詞、補助用言等附加要素，即以[命題]+[情態]爲之。

此附加的情態結構可界定爲「情態意義的添加」架構，可在韓語教學上帶來嚴謹且方便的認知及學習成效。

句命題後添加的情態意義予以分類，將使情態更有體系，其各情境的語用意義的闡明也有助於瞭解韓國人的文化及思考方式。

關鍵詞：命題,情態,句結構,依存名詞,補助用言,句法,語用

## 1. 문제의 제기

한국어의 문장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본 문형이 정리된다.

(1)

a.[주어+서술어]

b.[주어+목적어+서술어]

c.[주어+보어+서술어]

d.[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e.[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

그러나 한국어 문장은 (1)의 기본 문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괄호 안의 사항을 하나의 명제(proposition) 또는 내용(content)이라 한다면 이들 명제에다 붙게 되는 요소가 또한 있기 때문이다. 즉 [비가 오다]가 구조(1)a.인 [주어+서술어]에 해

당한데 이 구조를 일반 대화에서

(2)

a.[비가 오]느냐./네./오./ㅂ니다/아.,느냐?/는가?/오?/ㅂ니까/아?

b.[비가 오]ㄴ 것이다/것이네/것이오/것입니다.

c.[비가 오]았나 보다

등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종래의 한국어 문법서, 적어도 한국 교육당국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문법의 표준 교과서격인 <고교 문법>에서 (2)의 명제외 항목을 두고 시제, 존대법(대우법), 서법, 의존명사, 보조용언으로 따로따로 서술하는 것이 고작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에서는 '표현'이라 분류하고 있다. 다만 <7차 고교문법>에서 '이야기의 요소' 절에서 '심리태도'항이 다루어진 것뿐이다.

(2)의 명제외 문법요소는 다들 화자(말하는이)의 심리태도 즉 양태(modality)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화자가 명제에 대한 태도는 항상 명제의 맨 끝에 오고 있으며 어미변화, 화계, 서법, 의존명사, 보조용언 등으로 표현된다.

문법을 배우는 최종의 목적은 문장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며 의사전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기에 '명제+양태'란 구조를 밝힘으로써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훨씬 효과적이고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위 명제외 문법요소를 따로따로 각자 설명하는 것보다 그 화용적 의미를 통틀어, 즉 연어, 공기 형태에 양태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2. 명제외 양태

한국어의 문법요소 가운데 항상 문장의 맨 끝에 오는 것들이 다 양태, 화자의 심리태도를 포함하는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1.대우법은 양태이다

한국어 문법체계에서 대우법을 화자의 심리태도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적 규범만 간주하는 것이 상례다.

중고 한국어 체계에서 몇 가지 화계(speech level)가 떨어져 나가 없어졌으며 '-소서'와 같은 화계가 다만 서신이나 기도문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왕실이란 정치적 장치와 양반 계급이 무너지고 사라졌음이 크게 작용하거니와 자유평등 사상도 합세하여 대우법 체계가 간소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화계의 수가 줄어지고 있는 데 화자의 심리태도가 작용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계급이 엄했던 시대에 담화시 정해진 대우법대로 진행한 것 같아 보이나 청자에게 대우를 하든 안 하든 화자의 자유선택인 것 같다.

(3)

a.왜 반말 해?

b.말을 놓으세요.

란 대목이 불투명한 인간 관계에서 자주 등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대우법은 일종의 심리태도임을 보고 싶다. 화자가 명제 내용을 표현하는 데 청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대우법이기 때문이다.

## 2.2.서법은 양태이다

서법(mood)은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청자에게 서술하거나 회답을 요구하거나 그대로 행동을 바라거나 새로운 느낌이 들거나 하는 데 나타내는 심리태도이다.

(4)

a.방이 추워요.

b.비가 왔다.

c.꼴이 좋다.

(4)는 사실 진술만 하는 것 같으나 (4)a.는 창문을 닫으라 또는 난방 장치를 작동 시키라는 요구사항을 내포하기도 하다. (4)b.는 우산을 갖고 나가라거나 산보 나가자거나 등산을 그만하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4)c.는 진짜 광경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보기 사납다는 해석이 되기도 하는 말이다. 즉 서법도 화자의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이다.

### 2.3.화계 있는 양태

한국어 대우법이 하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쇼체, 해체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극하대법,보통하대법, 보통존대법, 극존대법, 반말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준하여 서법인 진술, 의문, 명령, 권유, 감탄 등이 대우법에 편입되어 표현하고 있다.

(5)

a.할아버지께서 진지 잡수셨다/잡수셨습니다/잡수셨어.

한국어의 대우법과 서법은 명제의 서술어부에서 어간+존대겸양선행어미+시제+화계+서법의 순서로 즉 '잡수+시+었+습니다'로 나타낸다. 이런 순서는 문장마다 마찬가지로이다.

양태가 화계에 따라 달라진 예는 다음과 같다.

(6)

a.이대로 두면 크게 해를 입으리라.

b.사노라면 슬픈 날도 있겠지만 즐거운 날도 있으리라.

c.봄이 오면 눈이 녹으리로다.

d.그 나무는 남쪽 지방에 많으오리다.

e.오직 임의 뜻을 좇으오리이다.

(6)은 화자가 상황에 대한 추측, 소신, 견해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며 화계이다.(국립국어원 국어대사전) (6)a.는 해라체,b.는 하오체,c.는 해라체 d.는 합쇼체,e.는 합쇼체에 각각 나타낸다.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양태도 대우의 높낮이가 있는 것이 한국어의 특질의 하나다.

#### 2.4. 부사와 양태

명제에 첨가되는 양태 요소는 부사와 어울리기도 한다. 이럴 때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 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7)

- a. 그는 아마 시골에 갔을걸.
- b.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 c. 혹시 누군가 올까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실망했다.

(7)a.에서 '아마'는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을걸'은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각각 명제 [그는 시골에 갔다]에 대해 첨가되는 화자의 심리태도다. b.에서 '설마 -겠지?' c.에서 '혹시 -르까' 등 추측하는 요소가 공기한다.(7)의 '아마'와 '설마'혹시'는 어느 성분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 전체를 한정하는 것이다.

(8)

- a. 부디 뜻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b. 제발 날 좀 놓아줘. 부탁이야.
- c. 아무쪼록 선처를 바랍니다.

'부디, 제발, 아무쪼록'은 희망, 요구를 뜻하는 양태 부사인데 뒤에 오는 서술어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의미의 중첩을 이루어 호응을 한다.

### 2.5. 연결문의 양태

두 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 한 문장이 될 경우 나열문이 아닌 종속문은 앞문장이 거의 화자의 심리태도가 들어 있는 것이다. 즉 연결어미도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9)

a. 외국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더 익숙해 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11-56-16.)

(9)a.는 각각 (10)a.b.c.로 환원할 수 있다.

(10)

a. 외국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다.

b. 외국 생활은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더 익숙해 진다.

c.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10)a.와 b.문장의 의미는 대립적이기에 대립표지인 '-지만'을 첨가했음직하다. c.와 같은 판단을 내리려는데 앞의 사항이 근거가 되어 이유표지인 '-니까'가 붙게 된다. 즉 종속연결어미도 화자의 심리태도를 내는 요소다.

### 3. 양태 요소

명제에다 덧붙이는 문법요소는 위에서 지적인 대우법, 서법, 양태 부사 등 외에 연어 형태로 이루어진 의존명사와 보조용언 등이 있다. 다음은 양태별로 분류하여 모았다.

### 3.1. 推測

사건 상황에 대하여 화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경우, 화자 자신의 일을 언급할 때 자기의 행동 의지를, 화자외의 사건 행동 상황일 때는 추측, 소신, 견해,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존명사 것,터,듯 등이 관형어미 -ㄹ/-을,-ㄴ/-은과 어울려 '-ㄹ 것이다', '-ㄹ 터이다' 등으로 된 형태는 자기 의지, 타인의 상황 추측 등을 나타낸다.

추측, 짐작만 나타내는 것이 '-ㄹ 것 같다', '-ㄹ시(-을 것이), '-ㄹ지', '-ㄹ지도 모르다', '-ㄴ/던 모양이다', '-는 듯이' 등이 있다.

(11)

a. 내일이면 꽃이 필 것이다.

b. 지금까지의 훈련 태도를 볼 때 우리 팀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14-34-6.)<sup>1</sup>

(11)a.는 [꽃이 피다]명제에 대한 화자의 경험담이다.내일이 되면 그런 상황에 꽃이 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11)b.는 [우리 팀이 이기다]에 대한 화자의 견해이요 소신이다.

(12)

a. 시장할 터인데 어서 들어라.

b. 네가 붙들면, 간절히 붙들면 마음을 돌리실 텐데.

(12)a.는 명제 [네가 시장하다]에다 '-ㄹ 터이다'를 첨가하여 화자의 짐작을 나타낸다. 남이 속이 비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짐작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12)b.는 역시 타인의 마음을 서술하는 데 역부족이니 짐작으로만 해

---

<sup>1</sup> 한국어능력시험 14회-중급-제목번호

야 한다. '-ㄹ 터이다'는 '-ㄹ 것이다'보다 추측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13)

- a. 그가 기뻐했을시 분명하다.
- b. 비가 오니 집에 있을시 분명합니다.

'-ㄹ 것이'가 줄여서 '-ㄹ시'가 된다. (13)a.[그가 기쁘다]란 내용은 화자가 짐작해야만 성립되는 사항이니 '기쁘다'를 '기뻐하다'로 고쳐 추측 의미가 들어 있는 '-어하다'를 첨가해야 한다.

(14)

- a. 약속을 잊을 것 같아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 b. 어쩌면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 c. 어두운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 d. 아는 듯이 말했다.
- e. 얼른 보면 이것이 내 것인 듯하다.

'-ㄹ 것 같다, -ㄴ 모양이다, -는 듯이, -ㄴ 듯하다' 등 의존명사로 이루어진 연어는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서술이다.

(15)

- a. 벌써 반이나 끝났다.
- b. 무게가 천 근이나 된다.

(15)는 보조사 -(이)나로 지레짐작한 내용이다.

(16)

- a. 내가 몇 등일지 마음엔 걱정이 가득했다.

- b. 어쩌면 내가 합격할지도 몰라.
- c. 어쩌면 그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 d. 곧 봄이 오리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 e. 남은 음식은 배고픈 짐승들이 먹으리니 그대는 걱정 마오.

(16)는 연결어미로 미지의 사항에 대한 짐작을 나타낸 것들이다.

(17)

- a. 지금은 고향에도 꽃들이 만발하겠지.
- b.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 c. 어제는 굉장히 신이 났겠네.
- d. 생각해 보니, 그 날은 눈이 왔겠더라.
- e.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 f. 중학생도 아마 그 정도의 문제는 풀겠다.

(17)은 선행어미-겠- 또는 -었겠-으로 (17)a.-겠-으로 현재의 상황을, b.c.d.는 -었겠-으로 과거의 상황을, e.는 미래 사항을, f.는 능력을 각각 짐작한다.

(18)

- a. 집에서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바빠졌다.

‘-ㄹ’관형어미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추측이다. (18)a.에서의 아내가 혹시 다른 일에 열중할지 모르나 내 짐작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확률이 높다는 추측이다.

(19)

- a.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나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 b. 그가 그 일을 했는가 했지만 실제로는 여동생이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

었다.

(19)a.는 화자가 명제 [사고가 나지 않았다]에 대해 불확실하고 걱정하는 심정을 의문표지인 '-나'로 표현한다. (19)b.에서 화자가 명제 [그가 그 일을 했다]에다 의문표지 '-는가'로 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출한다. (19)는 종결어미로 화자의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예이다.

(20)

a.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니 했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b.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려나 했는데 한 참을 기다려도 경기는 시작되지 않았다.

c. 나는 사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다.

(20)에서 '-려니','-려나','-거니'등은 종결어미로 한 일이 없고 항상 '하다'와 공기하여 화자의 일방적인 짐작내용을 나타낸다.

(21)

a.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b. 열차가 도착했나 보다.

c. 집에 있겠다 싶어 전화를 했다.

(21)a.b.c.는 화자가 명제 내용을 '-나 보다','-다 싶다'로 짐작을 나타낸다. 이들 언어형태는 보조용언으로 분류된다.

(22)

a. 설이 지나면 물가가 오르리라.

b. 이대로 두면 크게 해를 입으리라.

- c. 지금쯤은 집에 도착했으리라.
- d. 그러다가는 욕을 먹으리다.
- e. 내일이면 물건이 도착하리다.
- f. 봄이 오면 눈이 녹으리로다.
- g. 명을 어기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으)리라, (으)리다,-(으)리로다 등 종결어미는 명제에 붙여 화자의 미래 사항 짐작, 추량 태도를 나타낸다. 스스로의 사항에 대하여 의지를 선고 또는 경고의 태도를 표출한다.

### 3.2. 傾向

화자가 사건을 관찰, 짐작하여 그의 발전 방향, 추세, 추이를 보조용언인 '-게 생겼다','-려고 하다','-려 들다' 등으로 표현한다.

(23)

- a. 이제 시골 학교는 다 문 닫게 생겼다고요.
- b. 치료비 문제도 있고 어쨌든 두고두고 시끄럽게 생겼다.
- c. 비가 오려고 해.
- d. 곧 해가 뜨려고 한다.
- e. 조그만 것 하나 선물하고는 생색 내려고 들다니!
- f. 또 비가 오려나 보다.

(23)-게 생겼다'는 화자가 명제에 대한 관찰 결과로 그런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연결어미인 '-려고','-려'는 의향, 의지 표지인데 화자가 아닐 경우 '경향' 표지가 된다. (23)c.d.는 자연계의 비와 해를 두고 언급하는 것이니 '그런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23)e.f.에서 '-려고 들다/-려 들다','-려나 보다' 연어 형태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리라 짐작한다.

### 3.3. 疑懼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걱정,우려하는 태도를 주로 보조용언인 '-ㄴ까 보다', '-ㄴ까 무섭다', 종결어미인 '-ㄴ세라','-ㄴ라'로 표시한다.

(24)

- a. 야단 맞을까 봐 얘기도 못 꺼냈어.
- b. 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렸으나 강도일까 봐 문을 열지 않았다.
- c. 친구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섭다.
- d. 시험에 또 떨어질까 봐 무섭다.

연결어미와 보조형용사가 결합한 '-ㄴ까 보다', '-ㄴ까 무섭다'로 (24)a.명제 [야단을 맞다]에 대해 그 가능성이 짙음을 우려하는 태도를 표시한다.(24)d.[시험에 떨어지다]란 명제에 대한 발생우려를 나타낸다.

(25)

- a. 행여 쥐라도 숨어서 들을세라.
- b. 서둘러라. 학교에 늦을라.

(25)a.[쥐가 숨어서 듣다]란 명제 내용이 발생 가능성을 걱정하여 경고한다는 태도를 표시한 것이다. (25)b.는 [학교에 늦다]에 대한 화자의 경고 태도다.

### 3.4. 確認

화자가 사려,짐작하거나 듣던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주로 종결어미인 '-(으)ㄴ다/-는다면서', '-더라면서', '-(으)라면서', '-다지', '-는다지','-

더라지'로 표신한다.

(26)

- a.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면서?
- b. 내일은 날씨가 춥다지.
- c. 아마 저곳에 새 다리를 놓는다지.
- d. 그가 그 애의 오라버니가 아니라지 뭐니?
- e. 오늘 연설회에 모인 사람이 아주 많더라지?

(26)a.는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던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하려는 뜻을 전한다.

(27)

- a. 나보고 이런 것을 먹으란 말이냐?
- b. 제가 어제 과장님께 확실하게 보고를 드렸단 말입니다.
- c. 추수를 해야겠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말이야.
- d. 책 좀 빌려 줘. 네가 읽던 책 말이야.

'-ㄴ/-는/-단 말이다'는 화자가 아는 명제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28)

- a. 저 사람은 술만 마시면 저렇다니까.
- b. 한 번만 믿어 줘.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 c. 저 녀석은 과자만 보면 참지를 못 한다니까.
- d. 어머니가 오늘은 꼭 오신다니까.
- e. 저 사람은 내 말을 믿지를 않는다니까.
- f. 그 녀석 놀기만 하더라니까.

g. 어제 정말로 동창을 만났더라니까.

h. 내일까지도 어려우시더라니까.

(28)a.는 [저 사람은 술만 마시면 저렇다]란 명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해주는 것이다. '-다니까'는 각각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즉 형요소-다니까, 동사-ㄴ 다니까/-는다니까, 명사/동사-라니까, -더라니까 로 변형한다.

### 3.5. 志望

화자가 명제에 '-고 싶다', '-었으면 싶다/하다/좋다', '-고 지고'를 첨가하여 희망사항을 나타낸다.

(29)

a.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b. 그를 좀 보았으면 싶었지만 좀처럼 볼 수가 없구나.

c. 네가 나를 용서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화를 풀지 않다니 실망이다.

d. 빨리 왔으면 좋겠다.

e.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29)a.는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다]에 희망표지인 '-고 싶다'를 덧붙여 희망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자기 외의 사람이 어떤 지망사항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묻게 된다.

(30)

a. 부디 뜻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b. 제발 날 좀 놓아줘. 부탁이야.

c. 아무쪼록 선처를 바랍니다.

(30)a.는 [뜻을 이루다]에다 부사 부디와 기원하다 동사와 어울려 앞뒤에 첨가하여 화자가 명제에 대한 기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30)b.c.는 마찬가지다.

### 3.6. 意向

화자가 명제에 주관적으로 의지,의도,결심 표지를 덧붙여 행할 것을 나타낸다.

(31)

- a. 내일 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
- b. 내일 집에 갈 겁니다.
- c. 방학 때 여행할 참이다.
- d. 나는 이번 겨울 방학에는 집에 내려 가지 않을 작정이다.
- e. 난 모험을 하러 떠나겠어.

(31)는 각각 명제에 '-ㄹ 터이다', '-ㄹ 것이다','-ㄹ 참이다','-ㄹ 예정/작정이다'를 첨가하여 화자가 해당 사항을 할 의향을 표시한다. (31)e.'-겠-'은 여타 의향 표시보다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32)

- a. 시험이 끝난 후에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피곤해서 보지 않았다.
- b.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 c. 학비를 대느라고 시골의 땅은 다 팔았다.

(32)에서 '-려고','-고자','-느라고'는 의향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33)

- a. 새로운 기계 발명에 성공하고야 말겠다.
- b.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말겠다.
- c. 외국으로 떠나 버릴까 보다.

d. 한 대 때릴까 보다.

(33)에서 역시 의향 결심표지인 '-고 말겠다','-르까 보다'를 명제에 덧붙여 화자의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34)

a. 몸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운동합니다.

부사형 어미인 '-도록'은 뒤 동사의 실행정도를 나타낸다.

(35)

a. 모든 고통을 달게 받으리라.

b. 나도 열심히 책을 읽으리라.

종결어미인 '-(으)리다','-(으)리라'는 명제에 화자의 주관적 의지, 결심을 나타낸다.

### 3.7. 試行

화자가 명제를 시험 삼아 할 용의가 있다.

(36)

a. 이번 여름에는 수영을 꼭 배워 봐야겠다.

b.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른다.

(36)a.는 화자가 [수영을 배우다]에 시험 삼아 할 용의를 표시한다. 할 것도 같고 안할 것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36)b.는 화자가 명제 [그 일을 당하다]에 경험표지인 '-어 보다'를 덧붙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 3.8. 認定

화자가 앞 명제를 인정한다.

(37)

- a. 옷이 좋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다.
- b. 생선이 참 싱싱하기도 하다.
- c. 울타리 안만 생각하지 울타리 밖은 생각 안 하고 있네. (박경리 토지)
- d. 기쁜 일이고 말고.

'-기는 하다', '-기도 하다', '-기만 하다', '-고 말고'등은 긍정적인 사실에 강조하는 표지들이다. (37)c.-지는 앞의 것을 인정하면서 뒤 사실을 부정한 표지다.

(32)

- a. 어찌 된 셈이냐?
- b. 이만하면 실컷 구경한 셈이다.
- c. 그 정도면 잘 한 셈이다.

(32)는 일의 결과에 대해 최대한도로 인정한다는 표지다.

### 3.9. 讓步

화자가 명제를 인정하면서 뒤의 명제에 대해 의지 축소하여 받아들인다.

(33)

- a. 사람은 착하면 된다.
- b. 내 방에서 공부하여도 무방하다.
- c. 물건만 좋다면 돈은 얼마나 들어도 관계 없습니다.
- d. 창문 좀 열어도 괜찮겠습니까?
- e. 아이가 자꾸 떼를 써도 괜찮다고 하는 남편이 미워 보였다.

(33)a.에서 화자가 명제 [사람은 착하다]에 '-(으)면 되다' 표지를 붙여 명제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받아들인다는 양보의 태도를 표시한다. (33)b.c.d.e.에서 '어도 무방하다','-어도 관계없다','-어도 괜찮다'는 무방표지들이다. (33)b.는 [창문을 열다]명제에 인정양보표지인 '-어도 괜찮다'를 덧붙여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보인다.

(34)

- a. 이 문제는 천재라도 풀 수 없다.
- b. 국수라도 좀 먹으렴.
- c. 조금이라도 빛나간 것은 빛나간 것이다.
- d. 신 김치나마 더 있나?
- e. 변변치는 못하나마 많이 잡수십시오.

(34)에서 보조사 '-라도'는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34)a.는 가장 좋은 항목, (34)b.는 차선향목, (34)c.는 가장 나쁜 항목을 표시한다. (34)d.는 마음에 차지 않지만 받아들인다는 표지를 붙인다.

(35)

- a.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일단 해 보아라.

'-든지 -든지 간에', '-고 -고 간에'는 나열된 항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표지다.

(36)

- a.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줄을 모른다.
- c.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 보자.

'아무리 -어도', '기왕에 -(으)니까' 부사와 연결어미로 이루어진 인정양보표지다.

(37)

a. 바로 알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b. 줄 바에 빨리 다오.

의존명사로 이루어진 인정선택표지인 '-ㄹ 바에야'로 명제를 인정하면서 그와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 3.10. 後悔

화자가 해보지 못하던 일에 대해 뉘우침을 표시한다.

(38)

a. 기차가 떠나 버리고야 말았다.

b.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걸.

c. 차 안에서 미리 자 돌걸.

(38)a.에서 화자가 기차를 타보지 못한 일을 회상하여 뉘우침을 애석표지인 '-고 말았다'로 표현한다. (33)b.에서 역시 해 두지 않았던 일에 대해 애석함을 표현한다.

### 3.11. 婉曲

화자가 명제를 에둘러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말하는 태도이다.

(39)

a.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b. 생각해 보겠습니다.

(39)화자가 [대학원을 졸업하다] 명제에 겸양표지인 '-게 되다'를 덧붙여 졸업할 수

있는 계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표현으로 겸양 태도를 표시한다.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9)b.에서 [내가 생각하다]명제에 시행표지인 '-어 보다'를 덧붙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덜하게 한다.

(40)

- a. 그런데 말이야.
- b. 하지만 말이죠.
- c. 우리끼리라서 말인데.
- d. 내가 말이지 어제 낚시를 갔는데 말이지.

(40)는 기분완화표지 또는 주목표지를 명제에 덧붙인다.

(41)

- a.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들어오세요.
- b. 네가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c. 내일 와 주시면 어떨까요?
- d. 오늘 선생님을 꼭 뵈 수 있었으면 합니다.

(41)a.에서 허락완곡요구표지인 '-어도 좋다'로 요구 의사를 표현한다.(41)b.c.d.에서 과거조건표지인 '-았으면'에다 고맙다/좋다/하다 등을 덧붙여 조건 선택권을 청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완곡 태도를 표현한다.(김선희 2001: 108)

(42)

- a. 이번에는 갈 거지?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못 가겠어요.
- b. 이번 주말 모임에 나오실 거지요?  
마침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c. 좀 더 드시지, 왜 그만 드세요?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42)에서 거절하는 데 주관적 부정표지인 '안'을 피하고 외계영향부정표지인 '못'을 사용함은 완곡하게 거절하는 태도표시인 것이다. (이익섭 채완 2002:325)

(43)

a. 모험을 하다 보면 죽는 수도 있다.

b.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c. 개선의 여지가 많다.

(43)에서 가능표지인 '-는/-ㄹ 수 있다' 또는 여지(餘地)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의견을 완곡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다.

(44)

a. 거기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b. 꼬리가 길면 밟힌다.

c.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도 있다.

d. 돈을 쓰자면 한이 없다.

(44)에서 가정표지인 '-으면'으로 완곡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런 가설이 충족되면 어떤 일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심리부담을 덜할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 3.12. 否定

화자가 명제에 부정표지를 덧붙여 할 용의가 없다거나 한 적이 없다거나 힘이 미칠 수 없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45)

- a. 생존자는 하나도 없었다.
- b. 아무도 모른다.

한국어에서 부정표시 용언은 더러 있는데 '없다, 모르다'는 그것이다.

(46)

- a. 비가 오지 않는다.
- b. 무는 개는 짓지 않는다.
- c. 하늘도 두렵지 않다.
- d. 그는 가지 아니한다.
- e. 그를 만나지 못했다.
- f.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46)에서 명제에 의지불위표지인 '-지 않다/아니하다' 또는 상황불허표지인 '-지 못하다'로 화자의 부정태도를 표현한다.

### 3.13. 指示

화자가 남을 시켜 명제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는 태도다. 굳이 명령문을 쓰지 않아도 지시 사항을 타나낼 수 있다.

(47)

- a. 나를 잊지 말아요.
- b.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지 맙시다.
- c. 주방은 늘 청결해야 한다.
- d. 이 일은 반드시 이 달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 e. 손을 깨끗이 씻을 것.

- f. 손대지 맙니다.
- g. 기한이 넘으면 접수치 않음.
- h. 이제 너는 가도 된다.

(47)a.b.는 명령문,권유문으로 요구사항을 표현하지만 나머지들은 진술문으로 지시, 요구 구실을 한다.

### 3.14. 判斷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한 견해,소신,확신을 표현한다.

(48)

- a.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 b. 그 친구는 약속을 꼭 지킬 것입니다.
- c. 이만하면 실컷 구경한 셈이다.
- d. 그 정도면 잘 한 셈이다.
- e. 나는 네가 부산에 간 줄 알았어.
- f. 그 여자가 그렇게 예뻐 줄 몰랐어요.
- g. 무슨 일이나 순서가 있는 법이다.
- h. 사람이란 한번 만나면 떠나야 하는 법이다.
- i.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이다.
- j. 사자나 호랑이는 배가 부를 때 사냥을 하는 법이 없다.
- k. 젊음에는 사랑이 따르기 마련이다.
- l.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이다.
- m. 그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 n. 내겐 그를 저지할 만한 힘이 없다.
- o. 물에 빠질 뻔했다.

(48)에서 a.b.는 명제에 '-ㄴ/-ㄹ 것이다'를 덧붙여 화자의 소신, 확신을, c.d.는 '-ㄴ 셈이다'로 최대한인정을, e.f.는 '-ㄴ 줄 알다/모르다'로 인지를, g.h.는 '-는 법이다'로 규칙,규율을, k.는 '-기/-게 마련이다'로 자연순리를, l.m.는 '-는 편이다' 속성으로 화자의 판단태도를 나타낸다, n.는 '-ㄹ 만하다'로 그렇게 할 힘이 있다는 인지를, o.는 '-ㄹ 뻔했다'로 그런 지경에 거의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 3.15. 多幸

화자가 명제에 다행표지를 덧붙여 앞사항이 안 일어나면 뒷사항이 더 나쁘게 되었겠다는 것을 표현한다.

(49)

- a. 집에서 조금 일찍 나왔으니 말이지 하마터면 차를 놓칠 뻔했다.
- b. 그가 있었기에 말이지 없었으면 큰 낭패를 보았을 거야.
- c. 발붙임이라도 마련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부평초 신세가 될 뻔했다.

'-(으)니/-기에 말이지', '-(으)니/-기에 망정이지' 등 다행표지는 앞사항이 발생함이 다행으로 여기고 안 그러면 뒷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3.16. 感嘆

화자가 명제에 대해 새롭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50)

- a. 달도 밝다!
- b. 오늘은 날씨가 몹시도 나쁘다.

(50)에서 명사나 부사에다 보조사 -도를 붙여도 대조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

탄을 나타내는 것이다.

(51)

- a.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 b. 모를 내야 되는데 도대체가 비가 와야 말이지.

'-어(아)야 말이지'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표지다.

(52)

- a.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 b. 네가 벌써 대학생이구나!
- c. 학교가 참 크군.
- d. 그것 참 그럴듯한 생각이군 그래.
- e. 옷감이 색이 참 좋구려.
- f. 정말 깨끗한 동네이구려.
- g. 그 꼬마 참 예쁘더구려.
- h. 집을 참 잘 지었더구려.

종결어미 '-구나', '-군', '-구려', '-더구려'는 명제에 대해 참신한 감각이 드는 표지이다.

### 3.17. 原因

화자가 명제에 근원, 근거, 원인, 이유표지를 붙여 뒤 사항의 발전을 설명한다. 이유표지는 연결어미로 '-어서', '-으므로', '-이라/-이러서', '-길래', 복합 문법요소인 '-인만큼', '-기에' 등이 있다.

(53)

- a. 약속이 있어서 그만 나가 봐야겠어요.

- b. 숙제를 하지 않아서 꾸중을 들었다.
- c. 성적이 우수하므로 상장을 수여한다.
- d. 뜻밖의 일이라 어리둥절했다.
- e. 새것이라서 더욱 좋아요.
- f. 그가 온다길래 마중 나왔어요.
- g. 너는 학생인만큼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
- h. 비가 오기에 그이만 왔지요.

(53)a. 명제[약속이 있다]가 뒷행동의 원인이 되었음을 원인표지인'-어서'를 붙여 나타낸다.

### 3.18. 理由

화자가 명제에 대한 주관적 판단 결과를 뒷상황의 이유로 여긴다. 주관적인 판단이니만큼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법이다.

(54)

- a. 가을이 되니 나뭇잎이 떨어진다.
- b. 그 산은 높으니까 조심해라.

(54)a.는 나뭇잎이 떨어진 원인을 날씨가 가을이 됨에 두고 있다. 그러나 나뭇잎이 날씨 때문만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고안하면 이유표지는 주관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 3.19. 條件

화자가 명제를 뒷사항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 조건표지는 '-면'/'-거든' 등이 사용된다.

(55)

- a.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b. 거기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 c. 꼬리가 길면 밟힌다.
- d. 날씨가 개거든 놀러 오너라.
- e. 잘못 했거든 사과를 해야지.

(55)a.b.c.에서 '-으면'조건표지가 붙여진 명제 내용이 충족될 경우 뒷사항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55)d.e.는 보다 조건충족이 될 경우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 3.20. 俸仕

화자가 명제 내용에 봉사표지를 덧붙여 상대방에게 일을 대신하거나 거든다.

(56)

- a. 그는 친구의 숙제를 대신 해 주었다.
- b. 선생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56)a.는 [그는 친구의 숙제를 대신 하다] 명제에 봉사표지인 '-어 주다'를 덧붙여 그 일을 즐거이 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다. (56)b.는 겸양봉사표지인 '-어 드리다'를 사용한다.

### 3.21. 比較

화자가 명제 내용을 어떤 표준에 의거하여 우열, 고저 등을 대비하는 것이다. 동등 비교와 차등비교가 있다.

(57)

- a. 돈을 물을 쓰듯 한다.

- b. 열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 c. 그에게서 돈을 꾸느니 차라리 여행을 가지 마라.
- d. 바로 알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57)a.는 동등비교표지인 '-듯 하다'를, (57)b.는 차등비교표지인 '-만 못하다'를 명제에 덧붙인다.(57)c.d.는 명제에 '-느니 차라리'와 '-ㄹ 바에야 차라리' 비교선택표지를 덧붙인다.

### 3.22. 假裝

화자가 명제에 가장표지를 덧붙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58)

- a. 책을 읽는 척하는구나.
- b. 그는 일을 하는 체한다.
- c. 놀고도 일한 양한다.

(58)에서 명제에 '-ㄴ/-는 척/체/양 하다' 등 가장표지를 붙음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 4. 결론

한국어는 화자의 담화 심리태도를 문장의 맨 뒤인 서술어부에 나오도록 하는 언어이다.

언어는 문화, 정치제도, 사고방식을 잘 반영한다. 한국어는 과거의 양반 상민 계급이 엄했던 정치제도를 잘 반영한 대우법을 실행하는 언어이다. 담화시 상대방

을 자기와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대우 여부를 결정한다. 대우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임을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서법은 대우법과 같이 혼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청자에게 문장 내용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역시 화자의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다 복잡한 심리태도는 추측을 비롯하여 경향, 의구, 확인, 지망, 의향, 시행, 인정, 양보, 후회, 완곡, 부정, 지시, 판단, 다행, 감탄, 원인, 이유, 조건, 봉사, 비교, 가장 등은 대개 의존명사, 보조용언의 연어 형태로 표현한다. 양태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경우 의미가 비슷한 부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두 문장을 이음에 연결어미도 양태를 나타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高永根 (1983) 國語文法の 研究, 塔出版社

고영근 남기심 (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고영근 남기심 (1986) 국어의 통사 의미론, 탑출판사

郭宇鍾 (1983) 高校國文法, 東亞出版社

구현정 (1984) '내다'의 의미연구, (紫霞語文論集 第三輯)

國立國語院(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편, 커뮤니케이션 북스

國立國語院(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편, 커뮤니케이션 북스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김경원, 김철호 (2006)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유토피아

金東昭 (2005) 韓國語特質論, 정림사

金武林 (2006) 國語의 歷史, 한국문화사

- 金敏洙 (1969) 新國語學, 一潮閣
- 金敏洙 (1979) 文法, 語文閣
- 金敏洙 (1982) 國語文法論, 一潮閣
- 金芳漢 (1983) 韓國語의 系統, 民音社
- 김선희 (2001) 우리 사회속의 우리말, 한국문화사
- 金昇坤 (1972) 國語助詞의 職能考, (국어국문학 58 - 60호 pp 115 - 134)
- 金昇坤 (1977) 연결어미-고에 대하여(建大學術誌第21號人文科學篇pp 49-61)
- 金昇坤 (1982) 우리 말의 존대법에 대하여, (말과 글의 이해 pp 183-188)
- 金昇坤 (1984) 한국어 이음씨끝의 의미 및 통어기능연구(I) (한글 제186호)
- 金完鎭 李秉根 (1981) 文法, 博英社
- 김용경 (1987) '-더-'의 연구(우리 말 의미 연구pp99-134) 박이정
- 金鍾埴 (1984) 國語敬語法研究, 集文堂
- 金宗澤 (1984) 國語話用論, 螢雪出版社
- 김지은 (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김진호 (2000) 국어 특수조사의 통사 의미 연구, 역락
- 南基心 李廷玟 李鴻培 (1980) 語言學概論, 塔出版社
- 南基心 (1981) 國語文法の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塔出版社
- 南基心 루코프 (1983) 論理的 形式으로서의 - '니까'구문과 '어서'구문(國語의 統辭 意味論 pp 2 - 27)
- 盧大奎 (1983) 國語의 感歎文文法, 普成文化社
- 大東文化研究院 (1985) 高等學校 文法, 文교부
- 류구상 (1981) 부사와 는의 결합관계, (한글 제 173. 174호 pp 267 - 298)
- 柳穆相 (1993) 韓國語語法의 理解, 一潮閣
- 朴鍾國 (1980) 말본 사전, 正音社

- 文教部 (1988) 표준어 규정, (문교부 교시 제88-2)
- 文教部 (1988) 한글 맞춤법, (문교부 교시 제88-1)
- 민현식 (1998) 바른 글쓰기, (우리말 바로 쓰기), 문화관광부
- 박지홍 (1986) 우리 현대 말본, 과학사
- 박영순 (1993) 현대 한국어 통사론, 집문당
- 박영순 (1996)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순 (2004)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백봉자 (2000) 한국어 문법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서상규 (1984) 副詞의 統辭的 機能과 否定的 解釋 (한글 제186 호)
- 徐正洙 (1983) -(었)던에 관하여 (國語의 統辭意味論 pp 110- 131)
- 徐正洙 (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徐正洙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徐正洙 (1996)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 한국문화사
- 서정수 (2006)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성낙수 (1986) 보문명사 터지의 연구, 문법연구 제3집(탑출판사 p. 183)
- 손남익 (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 송동선 (2002) 말 바로 글 바로 , 글마당
- 宋在璇 (1993) 상말속담사전, 東文選 文藝新書
- 申昌淳 (1984) 國語文法研究, 博英社
- 申鉉淑 (1982) 관형형 어미의 의미연구(祥明女子大學教授論文集第十輯)
- 申鉉淑 (1982) 목적어 표지 / -를 / 의 의미연구, (언어 제7권 제1 호)
- 申鉉淑 (1986)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 梁續錫 (1976) 韓國語樣相의 話用論(I):提案文과命令文,(언어1-1 pp.121-141)
- 원영섭 (1993) 우리속담사전, 세창출판사

유현정 (1998) 국어 형용사연구, 연세대학교언어정보개발연구원, 한국문화사

윤석민 (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연구, 집문당

이관규 (2000) 학교문법론, 월인

李基東 (1986) 助動詞의 意味分析, (國語의 統辭意味論 pp 234- 251)

李基用 (1998) 時制와 樣相, 太學社

李吉鹿 이철수 (1979) 文法, 三和出版社

이병건 (1977)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이상태 (1995) 국어 이음월의 통사 의미론적 연구, 형설출판사

이석규 (1996) -은/-는의 의미연구, (우리 말 의미 연구pp77-97) ,박이정

이윤진 (2004) 한국어 문형 표현 100, 건국대학교 출판부

이은정 (1983) - 도록의 기능과 의미 유형 고찰, (한글 제 181 호)

李應白 安秉熙 (1979) 문법, 보진재

이익섭 (2006)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李翊燮 任洪彬 (1984) 國語文法論, 學研社

이익섭 이상억 채완 (1997) 한국의 언어 , 신구문화사

이익섭 채완 (2002) 국어문법론강의, 學研社

李仁模 ( ) 用言의 aspect (樣相)의 研究

이정민 배영남 (1982) 언어학사전, 한신문화사

이종철 (2004) 국어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역락

李周行 (2004) 한국어 문법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李熙昇 (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이희자, 이종희 (1998)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이희자, 이종희 (2002)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어미의 연구, 한국문화사

이희자, 이종희 (2003) 어미 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임지룡 (2001)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전수태 (1984) 진술미완의 {-아}와 진술완료의{-고} (한글제185호 pp67-87)
- 전재호 박태권 (1980) 국어표현문법, 이우출판사
- 정경일 외 (2001) 韓國語의 探求와 理解, 圖書出版 博而精
- 정문수 (1984) 相의特性에따른 韓國語풀이씨의分類,(문법연구제5집pp51-85)
- 鄭然燦 (1981) 韓國語音韻論, 開文社
- 鄭寅承 (1976) 표준 문법, 계몽사
- 정희정 (2002) 한국어 명사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한국문화사
- 曹圭彬 (1984) 국문법 志學社
- 조오현 (1991)국어의 이유구문 연구, 한신문화사
- 조오현 (1996) 전제와 이음씨끝의 의미, 우리말 의미 연구, 박이정
- 중앙일보 어문연구소(2005) 한국어가 있다1,2,3, 커뮤니케이션북스
- 崔鶴根 (1954) 方言의 時代差에 對한 考察, (국어국문학 11 ,pp 13 - 19)
- 崔鉉培 (1983) 우리 말본, 정음문화사
- 한 길 (2004) 현대 한국말의 마침씨끝 연구, 역락
- 한말연구학회 (1996) 우리말 의미 연구, 박이정
- 한말연구모임 (1996) 우리말 형태 연구, 박이정
- 한송화 (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한국문화사
- 허용 강현화, 고명균, 김미옥, 김선정, 김재욱, 박동호(2005)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박이정
- 허 용 (1979) 문법, 과학사
- (1984) 국어학, 샘문화사
- 홍기선 (1984) 한국어 풀이씨의 상적 특징, (문법연구 제5집pp 129 - 133)

洪思滿 (1983) 國語特殊助詞論, 學文社

洪允杓 (1983) 方向性 表示의 格 (국어의 통사 의미론 pp 48 - 63)

홍종선 (1983)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 제8권 제2호)

정희정 (2002) 한국어 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Fred Lukoff (1997)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 I, II, III, 연세대학교

예문

국어교육원 (1999)표준국어사전, 두산동아